



오세준 부안산림조합장, 장애인의 날 감사패

제46회 장애인의날을 맞이해 흥관식 회장에서부터 오세준 조합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오 조합장은 평소 신체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 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군의원 재직때 장애인 정책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과 다수의 감사패를 받았다. 산림조합장때도 매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여 년간 꾸준히 기증해 왔다. 오세준 조합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어려운 분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재능기부 레슨 진행

진안군 테니스선수단(감독 조효의)은 지난 18일 진안군 다목적구장에서 관내 테니스 동호회원들과 함께 재능기부 레슨을 진행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창단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지역 동호인들이 함께 배우려 테니스 실력 향상은 물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안군 테니스 동호회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춘향골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사회 미래인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껏 만들어진 딸기잼은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들을 위해 춘향골농협에 기탁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협 전북지부, 3D 유방 초음파 진단기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유방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21일부터 '자동인체유방초음파진단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보다 정밀한 검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장비는 유방을 3차원(3D)으로 촬영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검사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여성에게 흔한 '치밀 유방'의 경우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병변을 놓치기 쉬운데,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협 전북지부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 장비와 검진 시스템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

**특별대상 - 임규래 친절봉사회 회장
지역사회 봉사대상 - 유영준 목사**

전북의 한 봉사자가 평생의 헌신으로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 친절봉사회 임규래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열린 JTV와 국제로터리 3670지구와 함께한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임 회장의 삶 자체가 곧 봉사였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임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평생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그의 봉사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삶의 방식'이었다. 친절봉사대상 수상 이후에는 뜻을 같이하는 수상자들과 함께 친절봉사회를 조직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여름이면 무더위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치고, 겨울이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직접 나르며 삶의 온기를 전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는 진심어린 봉사는 지역사회 곳곳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친절봉사'라는 가치가 살아 숨 쉬었고 그 정성은 전북 도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임 회장의 봉사는 개인에 머물지 않았다. 매년 연말이면 손자들과 함께 돼지저축통을 모아 적십자사에 기



부하는 전통을 이어오며, 봉사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깊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오랜 세월 한결같이 이어온 '조용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임규래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초아의 봉사대상 특별대상 수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가 밝힌 작은 등불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친절봉사회 또다른 회원인 (사)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 유영준 목사도 지역사회 봉사부문 봉사대상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기자

추영곤 장수교육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대상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이 지난 18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봉사의 최고 권위인 '제22회 초아의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국제로터리 3670지구와 JTV전주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초아의 봉사대상'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추 교육장은 지난 36년간 교육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난한 국가유공자의 아들로 태어난 추 교육장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쓰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제자들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전주완산서초 교장 재임 시절부터 사비를 기탁해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시험'이라는 교육적 장치를 도입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포용적 교육 철학은 장수군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추 교육장은 교육장 재직 2년 동안 사비 1,080만 원을 출연해 관내 8개 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누구나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모든 학생이 지역의 소중한 자인임을 일깨우며, 보편적 복지와 자긍심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추 교육장은 교육 행정에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역 명사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장수인(人) 만나다'를



통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인성을 보듬는 장수만의 독자적인 인성 교육 브랜드를 정착시켰다. 조직 운영 면에서도 "공은 후배에게, 명예는 선배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문화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적인 봉사 역량을 갖춘 '준비된 봉사자'이기도 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복지센터를 찾아 130회 이상의 배식 봉사를 실천하고 16회의 헌혈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추영곤 교육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따뜻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봉사의 길을 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로터리 회원과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추 교육장의 수상을 축하하며 지역 내 봉사 정신 확산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장수=고관호기자



전북농협, 차세대 금융 인재 '넥스퍼츠 6기' 출범

전북농협이 신용사업 분야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7일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넥스퍼츠(Nexparts)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2025년도 전북 지역 농·축협 신규 인사자 가운데 신용사업 종사자 88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선배 기술자의 대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보험 마케팅, 세법 교육, 금융 사고 예방 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으며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넥스퍼츠는 농협과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N'과 전문가를 뜻하는 'Experts'를 결합한 이름으로,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자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용사업 전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 전북농협은 이번 6기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과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춘 금융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장계농협-남인천농협,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남인천농협과 손잡고 장수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한우 직거래 장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인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실시되었으며, 약 6,000여민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장계농협은 직거래 장터 행사를 통해 장수한우를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한우를 공급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남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원총연 전북지회와 MOU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센터)는 지난 15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와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 지역 15개 청소년센터와 10개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협약의 내용은 △청소년 대상 교육 및 각종 사업 연계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전문지식 및 정보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는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 송동면 학생에 장학금

남원시 송동면(면장 장군환) 관계지는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임광호)는 어려운 환경의 송동면 학생 1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땀투기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는 해당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는 매년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난방유 지원,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주열 열사 숭고함 기린다... 남원서 4·19 혁명 기념식

남원시는 지난 19일 금지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김주열 열사와 4·19혁명의 함께한 우리 선대들을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하자"며 추모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장애인의 날·춘향제 대비 장애인 보행환경 점검

남원시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및 제86회 춘향제 대비 시민의 광장 및 예촌 광장의 장애인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연기에 따라, 남원시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시민분과가 함께 장애인 주관을 기념하고, 평소 주말 관광객 유동 인구가 많은 시민의 광장·남원예촌 구간의 장애인 보행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 보행과 전통 보장구 및 휠체어 이동 시 인도, 횡단보도 등을 체험 및 점검했으며, 특히 이동 구간 내 경사로, 도로 경사턱 등 보행 약자가 불편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 체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